

은행

실적은 보수적 관점. 주주 환원의 Upside 집중 **SK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설용진

s.dragon@sks.co.kr
3773-8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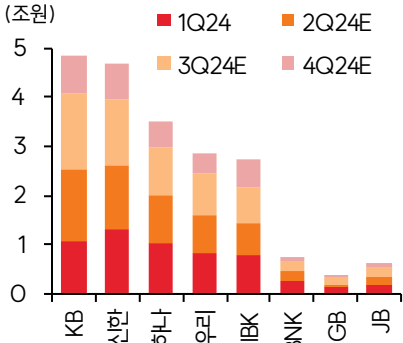
2Q24 Preview: 전반적으로 무난한 탐라인 예상

2Q24 은행업종의 탐라인은 1Q24 와 비슷하게 무난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이익의 경우 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마진 하락 추세가 일부 나타나겠지만 예상 대비 견조한 대출 성장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비이자이익의 경우에도 신용카드/Brokerage 등에 기반한 견조한 수수료이익, 금리 하락 등에 따른 매매평가익 개선 등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

관건은 결국 대손비용과 주주 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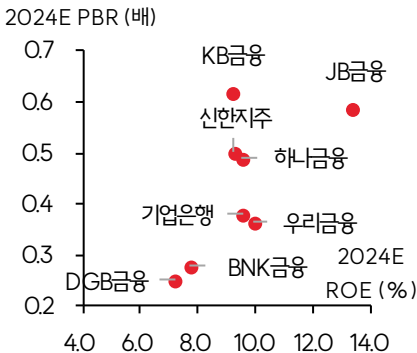
궁극적으로는 대손비용이 2Q24 실적을 좌우할 전망이다. 회사별 편차는 어느정도 존재하겠지만 공통적으로 1) 기업 신용등급 조정 등에 따른 추가 충당금, 2)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재분류에 따른 중/후순위, 브릿지론 익스포저(지방은행)나 책임준공형 신탁(시중은행) 등 관련 충당금이 일정 수준 발생할 전망이다. 실적 측면의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주주 환원이 핵심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 환원의 기준인 자본비율은 1) 환율 상승 및 2) 성장 확대 등 영향으로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전망한다. 현재 Target 자본비율을 감안했을 때 2Q24 실적 발표 시점에는 KB 금융 정도만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Target CET1 비율이 약 13%(시중은행 기준)인 상황에서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향후 미국 은행들의 Stress Test 처럼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완충 자본같은 명확한 자본 기준을 제시할 때 밸류업 트렌드와 맞물려 적극적인 주주 환원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커버리지 은행 예상 당기순이익



자료: 각사, SK 증권 추정

2024E PBR-ROE Matrix



자료: 각사, SK 증권 추정

실적은 보수적 관점. 주주 환원 측면의 Upside 집중

커버리지 은행들의 2Q24 합산 지배순이익은 5조 5,905억원(+3% YoY) 로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준을 전망한다. 부동산 PF 등 요인으로 여전히 실적 측면의 변동성이 남아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다시 밸류업 관련 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주 환원을 포함하여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 정책에 기반한 접근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형 은행을 선호하며 단기간 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에 따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KB 금융을 최선호주로, 신한지주를 차선호주로 제시한다. 최근 금융지주의 보험사 등 비은행 자회사에 대한 M&A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불확실성, ROE 제고, 리스크 관리, 자본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우선적으로 M&A의 당위성에 대한 투자자들과의 유의미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 전반적으로 무난한 탐라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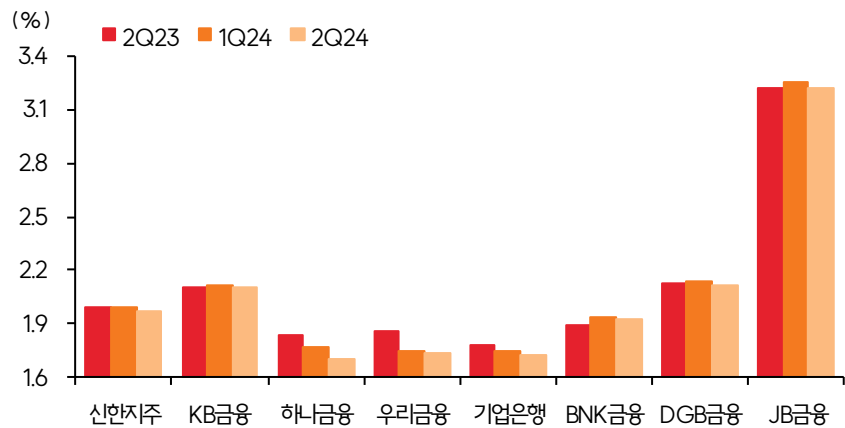
(1) 순이자마진: 경쟁 심화로 하락세 전망

대출 경쟁 등 심화에 따른 마진
하락 추세 전망

2Q24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 하반기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2) 은행 또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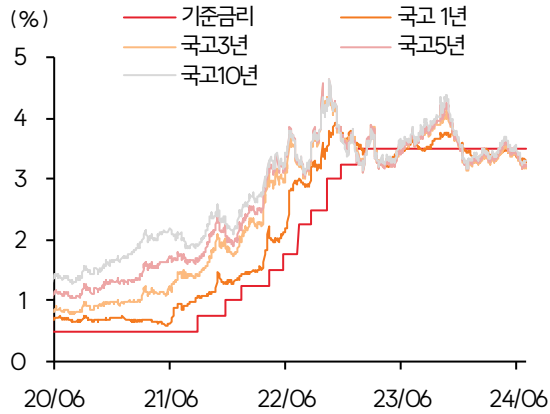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조달 측면의 부담 완화보다 여신 측면의 마진 하락 압력이 높은 환경이라고 판단하며 2Q24 기준 커버리지 은행 단순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약 2bp의 마진 하락을 전망한다. 2Q24 중 전반적으로 높은 자산 성장 전략을 추진했던 하나금융, 신한지주의 마진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커버리지 은행 NIM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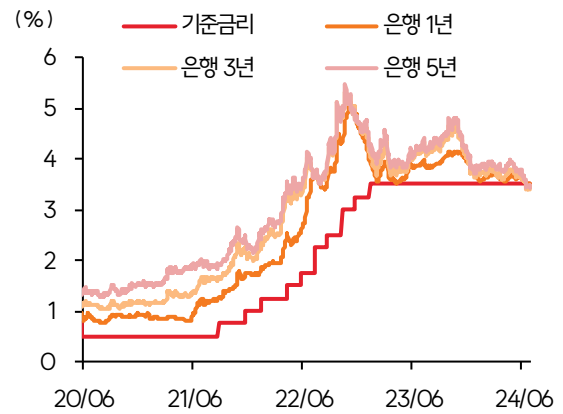
자료: 각사, SK 증권 전망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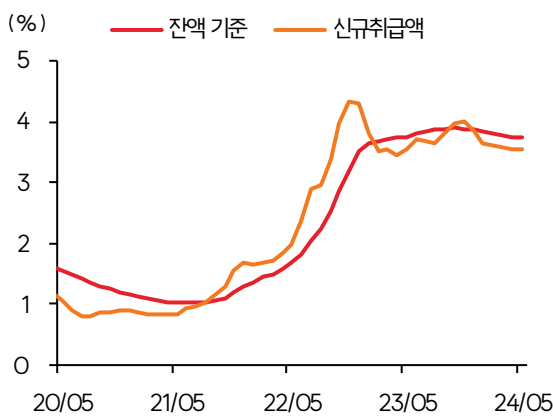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은행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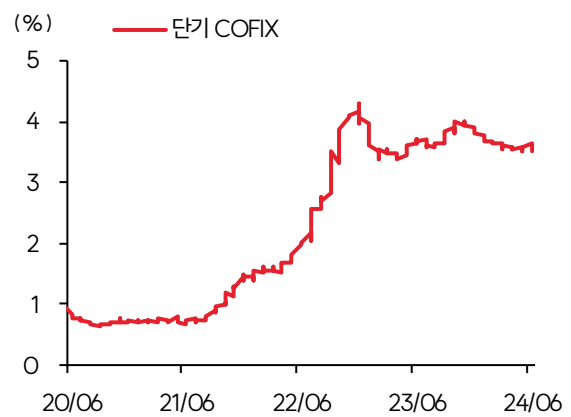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COFIX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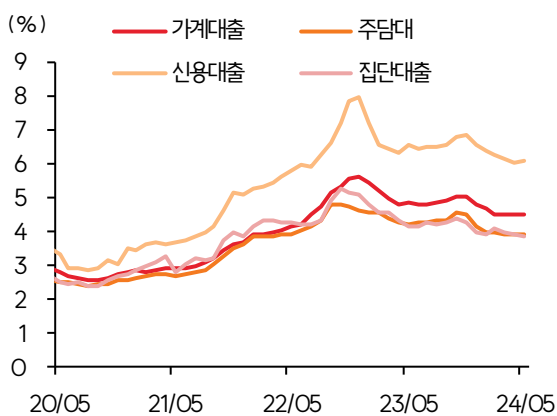
자료: 은행연합회, SK 증권

단기 COFIX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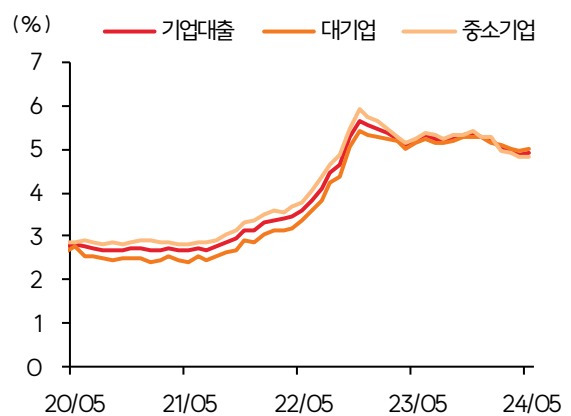
자료: 은행연합회, SK 증권

신규취급액 가계대출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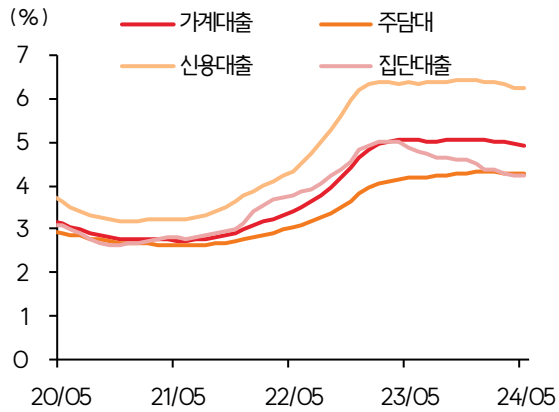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신규취급액 기업대출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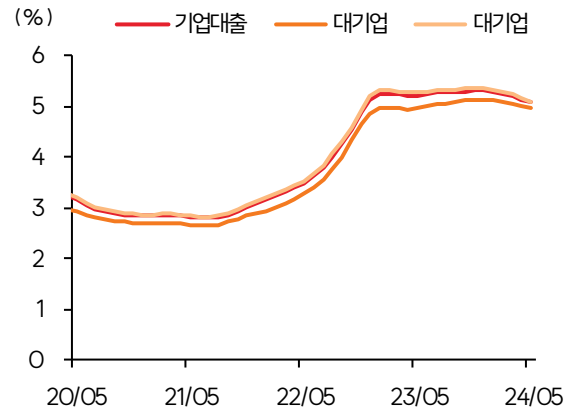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잔액 가계대출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잔액 기업대출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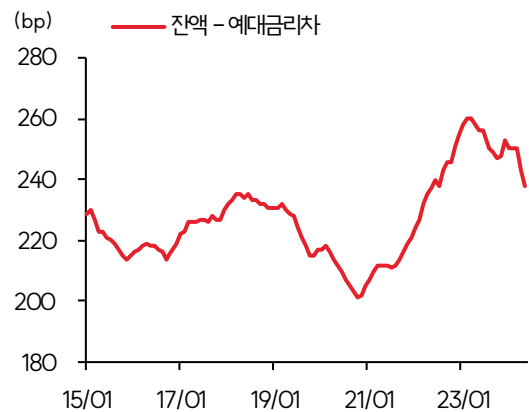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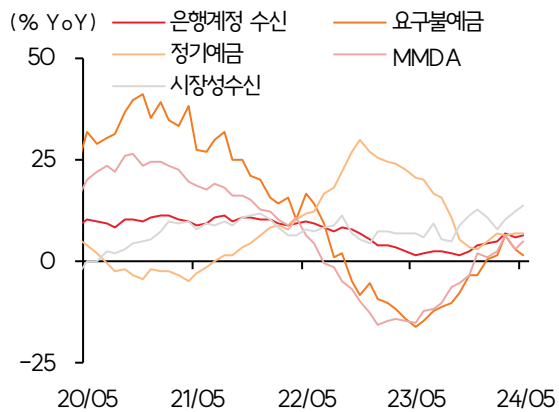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예대금리차(잔액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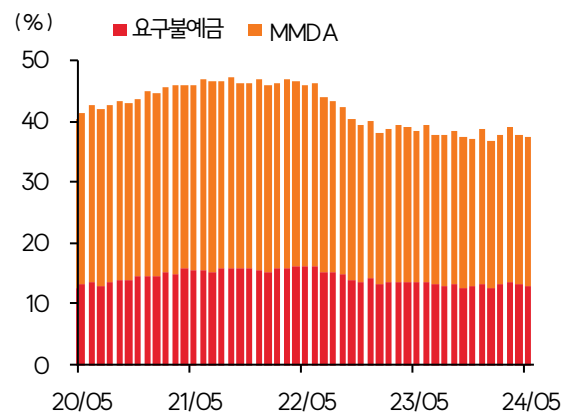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종류별 수신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전체 수신 대비 저원가성 예금 비중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2) 대출 성장: 주담대 및 대기업 대출이 주도한 예상 대비 가파른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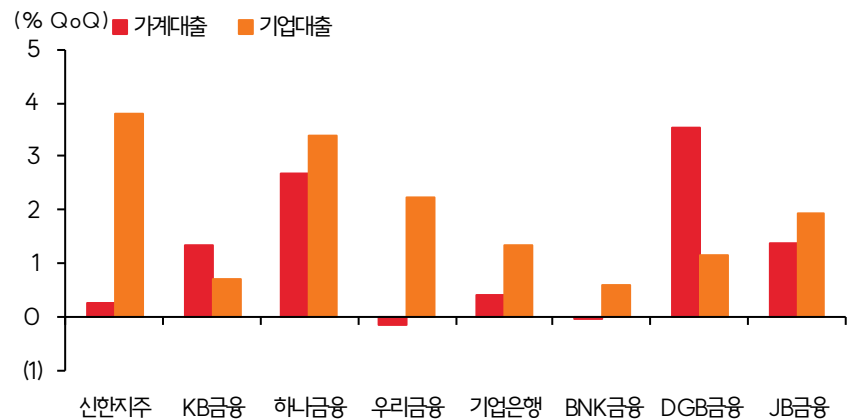
주담대 및 대기업 대출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성장 전망

대출 성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폭의 성장이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며 기존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의 대출 성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기업대출 역시 대기업 대출 중심으로 다소 높은 폭의 성장 기초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신한, 하나 등의 대출 성장 주도
예상되며 자본비율에 주력하는
회사의 경우 성장 조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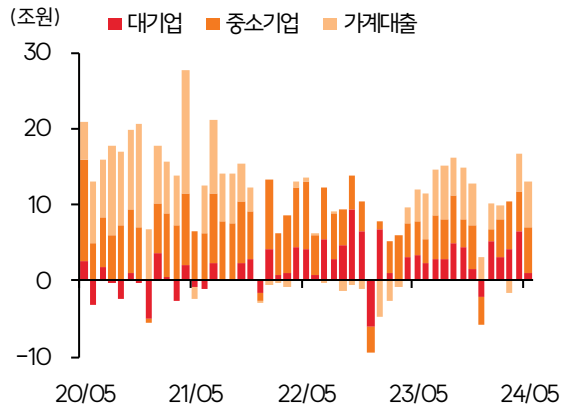
커버리지 은행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나금융, 신한지주 등이 대출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로 BNK 금융, 우리금융 등 상대적으로 자본 관리 측면에 방점을 두는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대출 성장이 나타났을 전망이다. 시중 은행 전환 이슈가 존재하는 DGB 금융의 경우 1Q24 중 업종 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CET1 비율에 대한 관리 등을 추진하며 전반적인 속도가 조절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커버리지 은행 2Q24 대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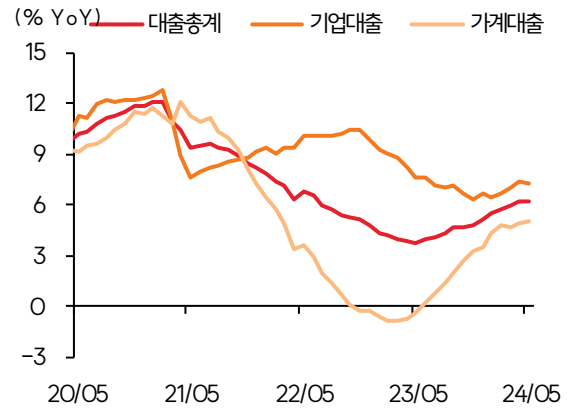
자료: 각사, SK 증권 전망

은행 월별 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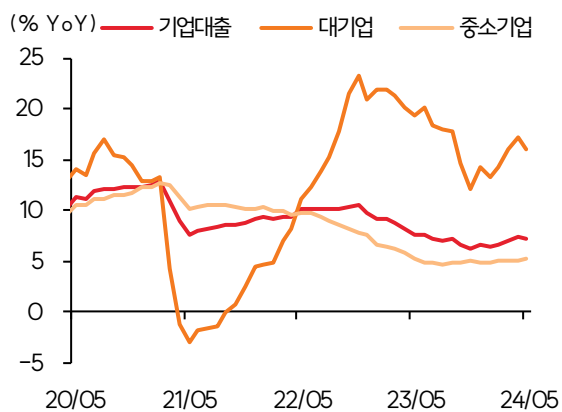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은행 전체 대출 YoY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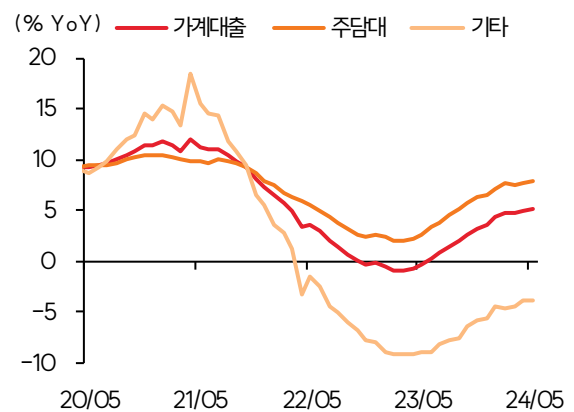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은행 기업대출 세부 YoY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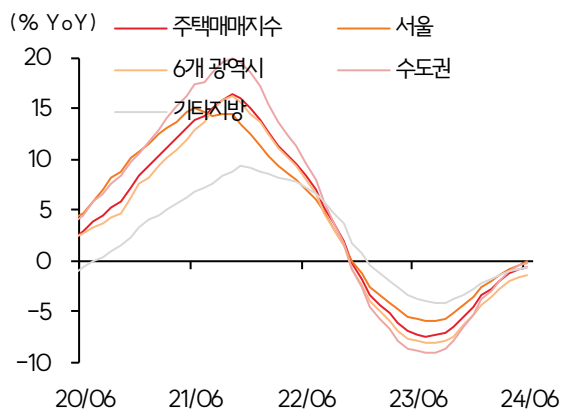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은행 가계대출 세부 YoY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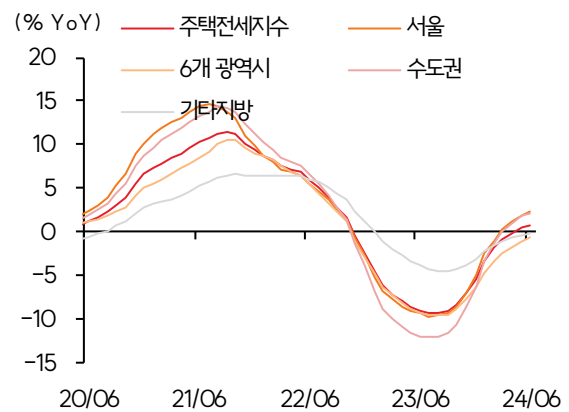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주택매매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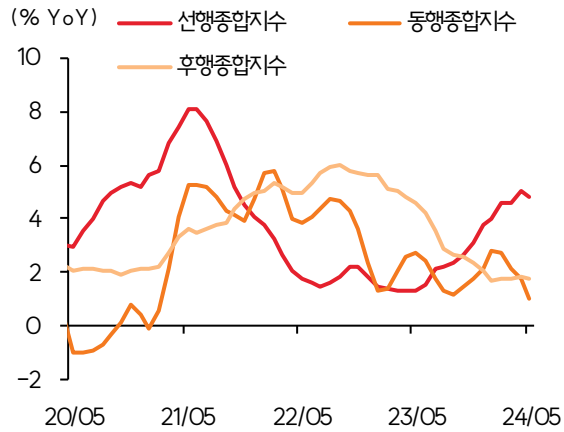
자료: KB 국민은행, SK 증권

주택전세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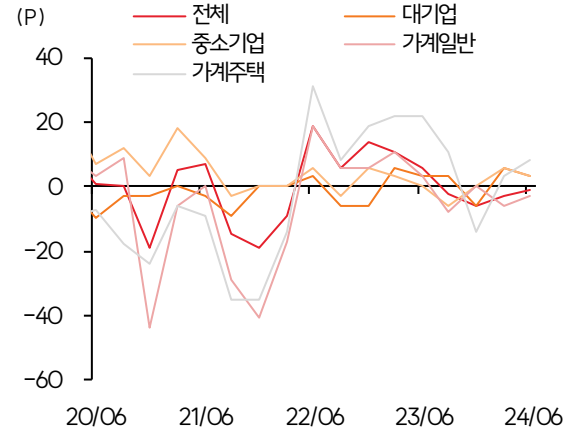
자료: KB 국민은행, SK 증권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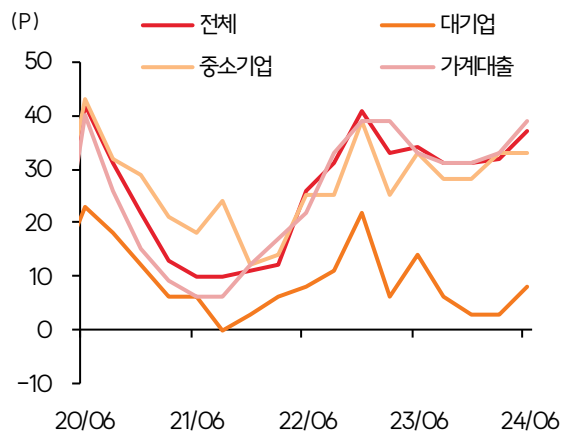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은행 대출태도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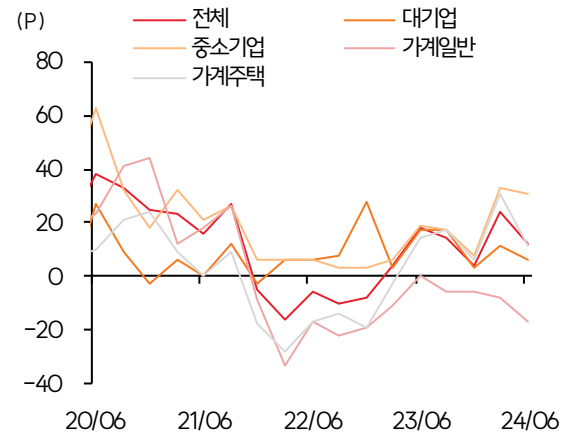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은행 신용위험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은행 대출수요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3) 비이자이익: 유가증권 매매평가이익 등은 긍정적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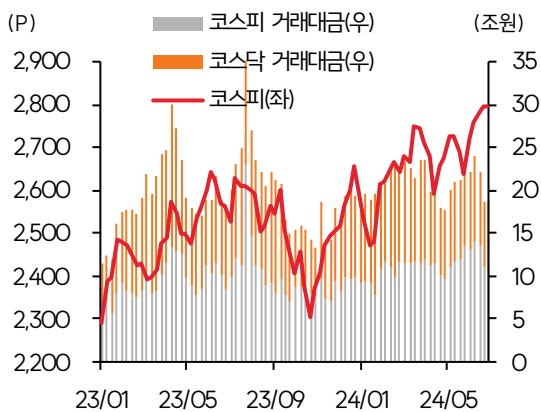
전분기에 이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비이자이익 추세 지속 예상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이익의 경우 1) 견조한 신용카드 이용 금액 및 2) 양호한 증권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타 비이자이익의 경우에도 1) 6월 말 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매매평가이익 개선 및 2) 안정적인 보험 손익 등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산 평가손실, 비화폐성
환차손, 대출채권 매각이익 등
영향으로 일부 변동성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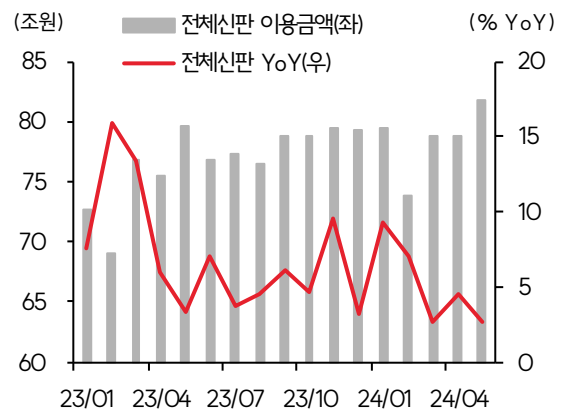
다만 1) 해외 부동산 업황 부진에 따른 투자자산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 2) 지속적인 환율 상승에 따른 비화폐성 환차손 등 요인은 비이자이익에 있어 일부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출채권 매각 등이 증가하는 만큼 대출채권 매각이익 등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코스피 지수 및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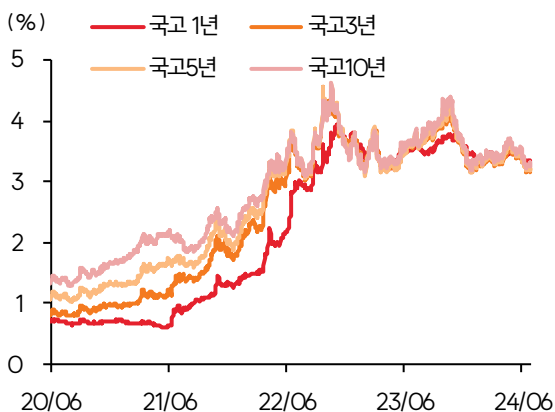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SK 증권

신용카드 이용 금액 추이



자료: 여신금융협회, SK 증권

채권 금리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FnGuide, SK 증권

2. 관건은 결국 대손비용과 주주 환원

(1) Credit Cost: 기업 신용등급 조정, 부동산 PF 등에 따른 영향 전망

신용등급 조정, 부동산 PF 관련
대손비용 영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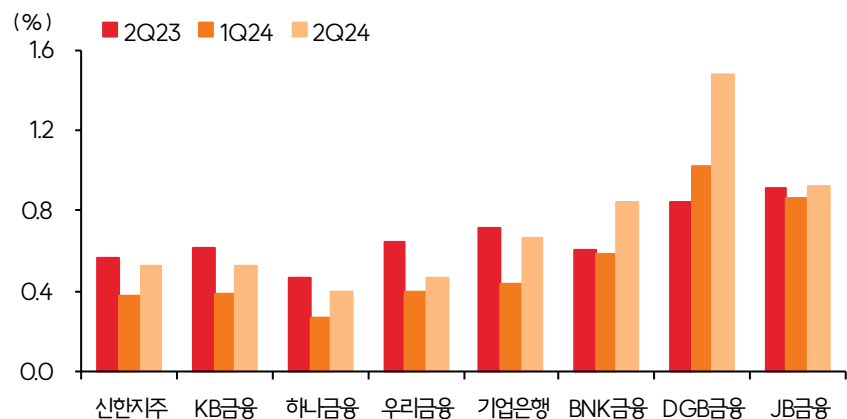
은행의 궁극적인 2Q24 실적은 대손비용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별 편차는 어느정도 존재하겠지만 공통적으로 1) 기업 신용등급 조정 등에 따른 추가 충당금, 2)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재분류 등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신용등급 조정의 23년 고금리 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실적이 부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충당금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사는 중/후순위나 브릿지론
관련 영향을, 대형사는 책준형
신탁 관련 영향을 예상

부동산 PF 사업장 재분류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기업사 간 차이가 예상된다. 지방금융지주 등 중소기업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후순위, 브릿지론 관련 사업장 비중이 높은 만큼 관련 대손비용이 일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은행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DGB 금융지주의 경우 비은행 자회사의 RWA 감축과 맞물려 부동산 PF 자산 관련 Clean up 이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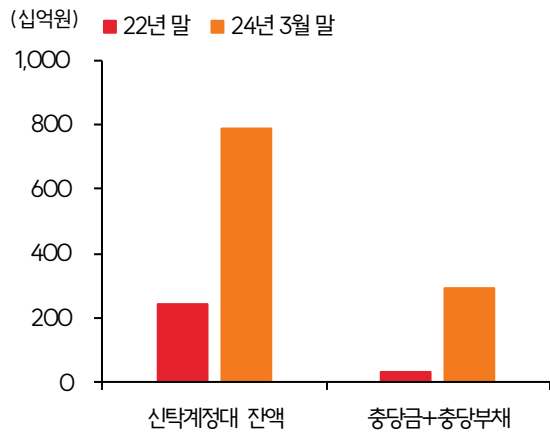
한편 대형 시중은행지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후순위, 브릿지론 관련 부담이 제한적이고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왔던 만큼 버퍼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신탁 자회사를 중심으로 공정률 저조/시공사 도산 등 요인으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책임준공형 신탁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손비용이 일부 예상된다.

커버리지 은행 Credit Cost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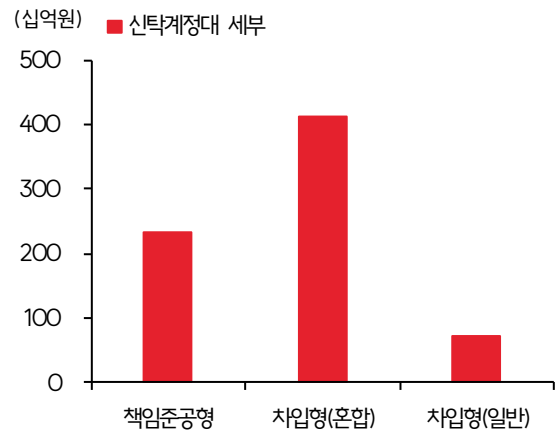
자료: 각사, SK 증권 전망

KB 부동산신탁 – 신탁계정대 잔액 및 총당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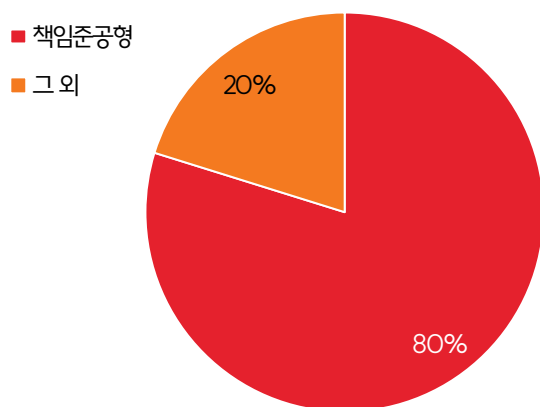
자료: 한국신용평가, SK 증권

KB 부동산신탁 – 신탁계정대 세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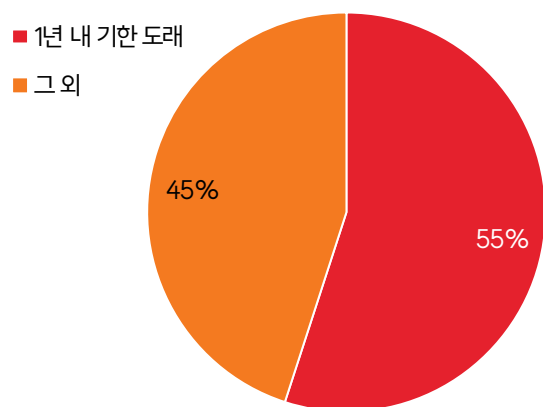
자료: 한국신용평가, SK 증권

KB 부동산신탁 – 총당금 세부 구성 현황



자료: 한국신용평가, SK 증권

KB 부동산신탁 – 향후 책임준공 기한 도래 시기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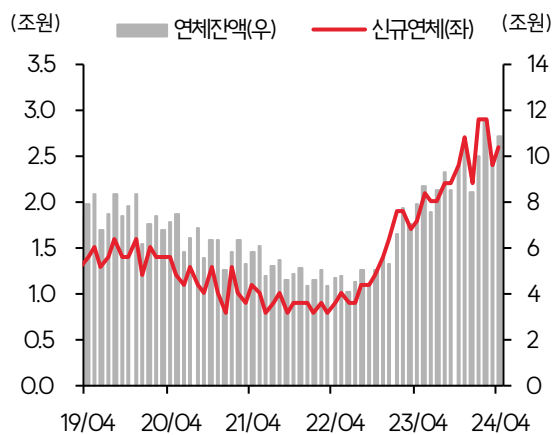


자료: 한국신용평가, SK 증권

비은행 자회사 중심으로 건전성
부진으로 인한 대손비용 부담
지속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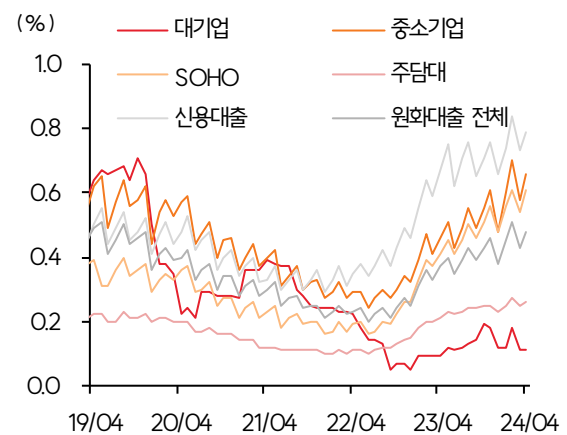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상/매각 등을 통해 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자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악화로 인한 대손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인 파산 접수 건수, 경매/낙찰 자료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진한 내수와 관련된 건전성 부담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금은행 연체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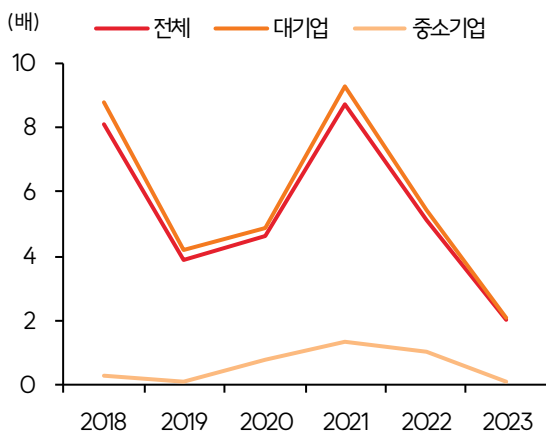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예금은행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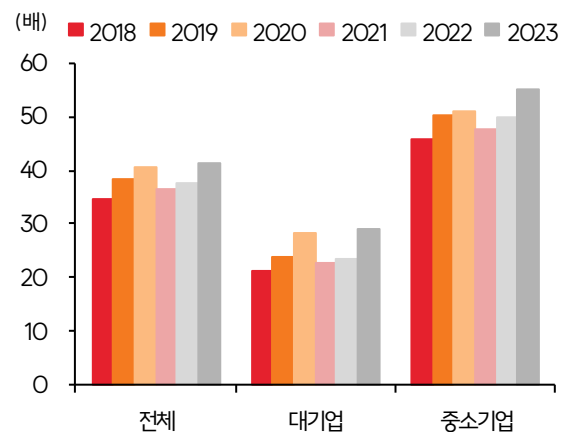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기업 규모별 이자보상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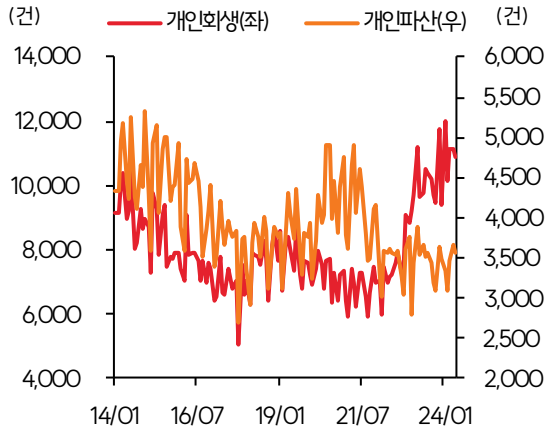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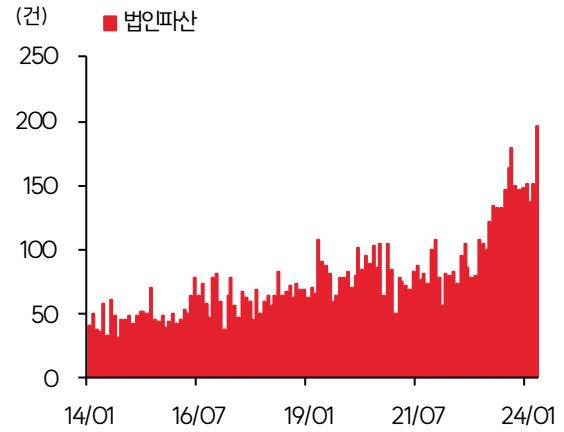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개인회생/파산 - 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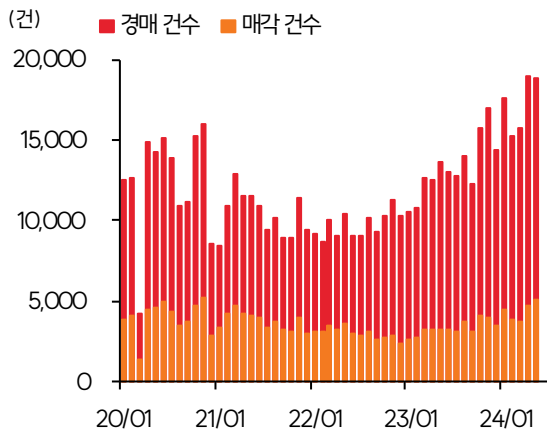
자료: 법원, SK 증권

법인 파산 - 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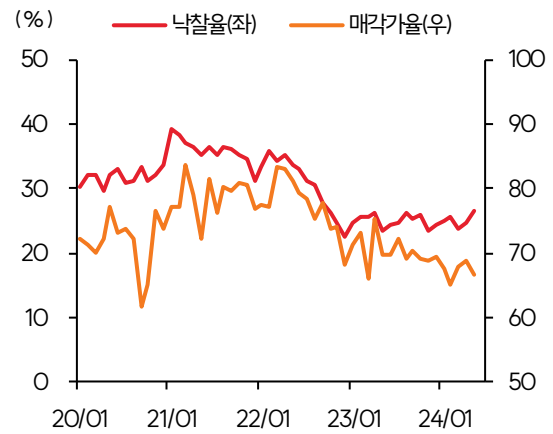
자료: 법원, SK 증권

경매 및 매각 건수



자료: 법원, SK 증권

낙찰율 및 감정가 대비 매각가율 추이



자료: 법원, SK 증권

(2) 자본비율: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여력은 제한적으로 예상

성장에 따른 RWA 증가 및 환율
영향으로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하락한 CET1 비율 예상

커버리지 은행의 2Q24 CET1 비율은 대체로 1Q24 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 예상 대비 높은 대출 성장에 따른 RWA 증가
영향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2) 최근 달러당 약 1,380 원을 상회하는 환율 환
경 등을 감안했을 때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환율에 따른 RWA 민감도가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Q24에는 KB 금융 정도만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자본비율 전망과 현재 Target 자본비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KB 금융 정도만
2Q24 실적 발표 시점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시장에서 동사가 올해 약 40% 수준의 총 주주 환원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 4 천억원 내외 수준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필요할 전망이
다. 신한지주의 경우 2Q24 부터 약 3 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3Q24 실적 발표 시점에 자본력 및 이익 체력이 충분할 경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Target 수준을 감안하면
점진적인 주주 환원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최근 밸류업 관련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주의 핵심 모멘텀은
주주 환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주주 환원의 기준이 되는 자본비율의 중요
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한편 현재 은행들의 경우 1) 경기대응완충자
본 Maximum 적립 수준인 2.5%와 2) 자체 버퍼 약 2.5% 내외를 바탕으로 시중
은행 기준 13%의 CET1비율을 Target으로 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익
수준이나 성장 폭 등을 감안했을 때 약 13%의 Target CET1 비율이 유지될 경우
은행업종의 총 주주환원율은 다소 점진적인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금융당국이 Stress Capital Buffer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은행들에게
요구되는 적정 버퍼 수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때 오히려 최근 밸류업 트
렌드와 맞물려 적극적인 주주 환원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처럼 Stress Test 등을 통해
자본 관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때 주주 환원 적극적 확대 기대

실제로 미국의 경우 매년 Stress Test 를 거쳐 은행들의 실질적인 손실 흡수 여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
각 등을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Stress Test 를 통해 1) 금융당국
입장에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2) 은행들도 명확한 기
준을 바탕으로 버퍼 등을 감안하여 주주 환원을 결정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
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연준 - 미국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카테고리	은행	CET1 비율(%)			포트폴리오별 대출 손실률 가정(%)			
		4Q23	1Q26E	예상 최저	전체 대출	기업대출(C&I)	CRE	신용카드
I	Bank of America	11.8	9.3	9.1	5.5	5.9	11.4	16.7
	Bank of NY Mellon	12.0	14.8	12.2	2.4	4.9	8.4	0.0
	Citigroup	13.4	11.1	9.7	7.6	5.0	8.3	16.9
	Goldman Sachs	14.4	10.7	8.5	8.5	16.2	15.9	25.4
	JPMorgan Chase	15.0	13.4	12.5	6.3	11.6	3.0	16.4
	Morgan Stanley	15.2	14.4	10.6	4.1	14.1	8.0	0.0
	State Street	11.6	13.5	11.2	3.9	8.1	6.2	0.0
	Wells Fargo	11.4	8.1	8.1	6.0	7.4	9.9	18.6
II	Northern Trust	11.4	11.6	11.4	7.0	7.3	13.0	0.0
III	Bardays US	13.7	11.1	9.5	12.6	19.3	3.8	17.1
	Capital One	12.9	7.6	7.6	16.5	13.6	14.6	23.2
	Charles Schwab	24.5	27.3	25.2	1.3	11.5	0.0	0.0
	Deutsche Bank USA	27.8	14.5	14.5	4.5	2.1	9.1	0.0
	PNC Financial	9.9	8.3	8.3	5.8	6.9	9.7	18.9
	TD Group US Holdings	17.1	14.8	14.8	6.2	7.9	8.1	21.5
	Truist Financial	10.1	7.9	7.9	6.4	6.4	9.6	16.3
	UBS Americas	19.3	10.0	10.0	2.9	3.1	7.4	18.6
IV	US Bancorp	9.9	7.6	7.5	6.8	8.0	9.8	17.5
	Ally Financial	9.4	7.1	7.0	7.7	7.8	3.6	40.6
	American Express	10.5	11.8	9.4	12.3	16.1	0.0	10.1
	BMO Financial	10.5	5.0	5.0	7.5	7.6	9.8	18.0
	Citizens Financial	10.6	6.5	6.5	6.8	6.9	8.9	19.4
	Discover Financial	11.3	11.0	8.8	18.7	21.8	0.0	20.3
	Fifth Third	10.3	7.7	7.7	7.9	8.1	12.3	19.6
	HSBC North America	11.8	6.7	6.7	6.4	7.0	11.0	18.6
	Huntington	10.3	8.5	8.4	6.1	6.4	10.1	18.6
	KeyCorp	10.0	7.4	7.4	6.8	7.0	11.0	18.6
	M&T Bank	11.0	7.7	7.7	7.0	7.3	7.8	18.6
	RBC US Group	15.7	9.4	9.4	8.5	12.1	15.8	18.6
	Regions Financial	10.3	8.5	8.5	7.8	8.6	12.4	15.9
	Santander Holdings USA	12.4	10.1	10.1	11.8	6.9	5.0	18.6

자료: FRB, SK 증권

주: 카테고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은행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분류

3. 실적은 보수적 관점. 주주 환원 측면의 Upside 집중

(1) 커버리지 2Q24 지배순이익 5 조 5,905 억원(+3% YoY) 전망

커버리지 은행 합산 지배순이익
5 조 5,905 억원(+3% YoY) 예상

커버리지 은행들의 2Q24 지배순이익은 5 조 5,905 억원(+3% YoY)로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대비 가파른 대출 성장으로 마진은 다소 하락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순이자이익은 안정적인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비이자이익 역시 유가증권 매매평가익 개선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회사별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 충당금 적립 현황 등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대손비용 측면의 변동성이 다소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Q24 보다는 전반적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십억원)	2Q23	1Q24	2Q24E	(YoY)	(QoQ)	2Q24E 컨센서스	vs 컨센서스	2024E	2024E 컨센서스	vs 컨센서스
합계	5,453	5,544	5,591	3%	1%	5,681	-2%	20,438	20,988	-3%
KB 금융	1,499	1,049	1,501	0%	43%	1,437	4%	4,863	4,829	1%
신한지주	1,238	1,322	1,273	3%	-4%	1,297	-2%	4,692	4,744	-1%
하나금융지주	919	1,034	957	4%	-7%	965	-1%	3,523	3,751	-6%
우리금융지주	625	824	787	26%	-5%	804	-2%	2,869	2,962	-3%
기업은행	664	781	653	-2%	-16%	679	-4%	2,718	2,842	-4%
BNK 금융지주	203	250	200	-2%	-20%	213	-6%	752	801	-6%
DGB 금융지주	142	112	51	-64%	-55%	118	-57%	387	426	-9%
JB 금융지주	163	173	169	4%	-3%	168	0%	634	634	0%

자료: 각사, SK 증권 추정

(2)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등 Upside 기대할 수 있는 회사 선호

실적 측면의 변동성 감안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정책에
기반한 접근이 핵심

부동산 PF, 건전성 지표 악화 등 요인으로 여전히 실적 측면의 변동성이 남아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다시 밸류업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등 세제 측면의 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주 환원을 포함하여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 정책에 기반한 접근이 핵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세제혜택의 경우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왔던 은행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다소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정책 측면의 수혜보다 은행들의 자체적인 주주 환원 확대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밸류업 공시 등 노력 및 전반적인
안정성 감안하여 대형 은행 선호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형 은행을 선호한다. 최근 시중은행지주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공시 발표를 예고하며 3Q24 중 출시가 예정된 밸류업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지수와 관련된 수급 측면의 우호적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 체력, 자본력 및 건전성 현황 등을 감안했을 때에도 공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기업은행이나 상대적으로 부동산 PF 등 변동성이 높은 지방은행지주 대비 안정적으로 주주 환원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은행 중에서는 단기간 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기대
가능한 회사 선호. Top pick: KB

대형 은행 중에서는 단기간 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등 이벤트에 따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를 선호한다. 2Q24 의 경우 1) 선제적인 총당금 적립 및 2) ELS 관련 이슈 소멸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3) 약 40%의 총 주주 환원율이 기대되는 만큼 약 4 천억원 내외 수준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KB금융을 Toppick으로 제시한다. 차선호주로는 1) 3Q24 까지 약 3 천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진행되고 있으며 2) 향후 3Q24 실적 발표 시점에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한지주를 제시한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2Q24 중 가파른 자산 성장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최근 M&A 나 증권 자회사 출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 측면의 자본 활용 여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꾸준히 CET1 비율 관리를 최우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BNK 금융지주의 경우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향후 2Q24 실적 발표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밸류업 세제 혜택 - 주주 환원 확대 시 초과분의 5%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한 Scenario Test

기간	항목	KB 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BNK 금융	DGB 금융	JB 금융
과거 3년 평균 (20년~22년)	3yr 평균 현금배당	995	980	807	579	587	163	94	117
	3yr 평균 자사주 소각	100	150	50	0	0	0	0	0
	주주 환원 합계(A)	1,095	1,130	857	579	587	163	94	117
2023년	현금배당	1,166	1,086	980	749	785	164	92	164
	자사주 소각	572	486	150	100	0	36	0	20
	주주 환원 합계(B)	1,738	1,572	1,130	849	785	200	92	184
	과거 3년 평균 기준 5% 증가분 (C=A*105%)	1,150	1,187	899	608	616	171	99	123
	23년 주주 환원 초과 증가 규모 (D=B-C)	588	386	230	241	169	29	-7	61
	세액공제(초과 규모의 5%) (E=D*5%)	29	19	12	12	8	1	n/a	3
	23년 당기순이익(F)	4,563	4,478	3,498	2,626	2,675	679	412	604
	세액공제 반영 가정 시 23년 당기순이익(G=F+E)	4,593	4,497	3,510	2,638	2,684	680	412	607
	세액공제 이익 기여 정도(H=E/F)	0.6%	0.4%	0.3%	0.5%	0.3%	0.2%	0.0%	0.5%

자료: 각사, SK증권 추정

주 1: 주주 환원은 현금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기준으로 산정

주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 영향으로 기업은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의 현금배당성향이 20%로 제한. 해당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실제 세액공제 예상 금액은 더 작을 수 있다고 판단

(3) M&A 의 경우 신중한 관점의 접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우리금융 중심으로 M&A 관련
이슈 지속적으로 발생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ABL 생명과 비구속적 MOU 를 체결하는 등 금융지
주의 보험사 인수 등 비은행 자회사에 대한 M&A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
습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M&A 에 있어서는 제도/자본
등의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다소
신중한 접근이 나타날 전망

다만 실제 M&A 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
사의 경우 1) IFRS17/K-ICS 와 같은 신 회계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
큼 CSM 산정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여부나 제도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2) 24 년~27 년에 걸쳐 진행될 할인을 조정 및 금리 하락 전망 등과 관련하여 자본
측면의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3) 또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의 경우
주요 금융지주 대비 낮은 ROE 를 보유하고 있어 M&A 에 따른 ROE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럽금융그룹의 보험 매각
1) 신속한 회생, 2) 부실 전이
방지, 3) 자본 규제 강화 등 영향

해외에서는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유럽의 주요 복합
금융그룹이 보험사업을 매각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그룹의 신
속한 회생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업을 매각한 경우(RBS)도
있었지만 대체로 2) 보험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방
지(ING)하거나 3) 바젤 3/Solvency II 도입 등 자본 규제 강화에 따라 보험사업 보
유에 대한 자본비용 증가(HSBC) 영향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전반적
으로 리스크 관리/자본 활용의 효율성에 기반한 접근이 요구될 전망이다.

유럽 복합금융그룹 - 보험사업 축소 사례		
매각 원인	회사	세부 내용
그룹 회생	RBS	- ABN 압로 인수 이후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대출 등에 활용하다가 유동성 위기 발생 - 신속한 공적자금 상환 등 회생을 위해 그룹 내 가장 수익성이 양호한 보험사업 부문 매각
보험부문 부실 전이 방지	ING	- 보험/은행 부문의 투자손실 확대(보험 5.7억 유로, 은행 2억 유로 손실) -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 부문의 부실 등을 감안하여 공적자금 지원 조건으로 은행/보험 분리를 통한 위험전이 차단, 이중 레버리지 해소 등 요구
	Dexia	- FSA Insurance 의 미국 지방채 관련 Bond Insurance 관련 부실로 공적자금 지원 - 상대적으로 보험업 비중이 높지 않아 은행/보험 겸영은 허용되었으나 FSA 매각, 생명보험업 매각 등을 추진하며 보험사업 축소
자본 효율성 제고	HSBC	- 자발적으로 보험사업 부문 구조조정 - 바젤 3 도입을 앞두고 핵심사업 중심 자본 활용을 위해 보험사업 매각

자료: 보험연구원, SK 증권

출자금액 기준 CET1 자본의
10%까지는 RWA 반영.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본에서 전액 차감

은행의 보험사 M&A 와 관련하여 자본 측면의 영향을 살펴보면 보험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경우 CET1 자본의 10%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결정되며 1) 출자금액이 공제한도 이하인 경우(CET1 자본의 10% 이내) 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여 RWA 에 가산하는 형태로 자본비율에 영향이 발생하지만 2) 출자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CET1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형태로 자본비율에 반영된다.

출자금액이 CET1자본의 10%를 하회하는 경우 RWA와 관련하여 250%의 가중치만 적용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자본비율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10%를 상회하는 경우 1) CET1 자본의 10% 규모에 대한 250%의 가중치 적용 및 2) 초과분에 대한 차감이 모두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본 측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금융지주가 1Q24 실적 발표 시점에 보험사 인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력으로 약 1.8 조원 수준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주 환원 등 여력 제한 가능성
등 감안하면 M&A에 대해
주주들과 공감대 형성 필요

다만 최근 밸류업 영향으로 은행 주주의 최대 관심사가 주주 환원 등을 통한 주가치 제고가 된 상황에서 M&A 등 영향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자본 여력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하기에 앞서 1) M&A를 통해 확보되는 미래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 효과, 2) 인수를 통해 확보되는 시너지 효과 및 3)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본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에 대해 주주들과 적극적인 소통 및 유의미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투자증권 출범 등 감안했을
때 자본 활용의 우선순위 등
검토하여 M&A 추진할 전망

특히 최근 동양생명 인수 등에 있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1) 비은행 강화에 있어 증권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고 있으며 2) 현재 종금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영위하고 있는 발행어음 등 사업을 연속성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유지되는 기간 내 초대형 IB 요건(자기자본 4 조원)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본 활용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M&A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며 적정 가격 등 산출에 있어 신중한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4. 기업별 실적 추정

KB 금융 – 분기별 실적 추정 및 전망

(십억원, %)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총영업이익	4,297	3,960	3,598	4,412	4,300	4,238	-2.5	0.1
순이자이익	3,010	3,125	3,183	3,152	3,201	3,221	1.6	6.4
비이자이익	1,287	835	414	1,261	1,099	1,016	-12.8	-14.6
수수료이익	951	901	907	990	919	907	-7.2	-3.4
기타비이자이익	336	-66	-492	270	179	109	-33.6	-46.6
판관비	1,593	1,565	1,924	1,628	1,669	1,640	2.5	4.8
총전이익	2,704	2,395	1,674	2,784	2,631	2,598	-5.5	-2.7
대손충당금 전입액	651	449	1,378	428	581	451	35.7	-10.7
영업이익	2,053	1,947	296	2,355	2,049	2,146	-13.0	-0.2
세전이익	1,961	1,903	263	1,407	2,009	2,066	42.8	2.5
당기순이익	1,505	1,337	211	1,063	1,487	1,529	39.8	-1.2
지배순이익	1,499	1,369	255	1,049	1,500.9	1,545	43.1	0.1
그룹 대출채권	434,954	441,721	444,805	448,194	453,453	458,909	1.2	4.3
그룹 예수금	396,082	398,944	406,512	418,071	427,833	434,904	2.3	8.0
(%, %p)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NIM	2.10	2.09	2.08	2.11	2.10	2.09	-0.01	0.00
CIR	37.1	39.5	53.5	36.9	38.8	38.7	1.92	1.76
Credit Cost	0.62	0.42	1.27	0.39	0.52	0.40	0.13	-0.09
NPL 비율	0.44	0.48	0.57	0.63	0.63	0.64	0.00	0.19
BIS 비율	17.0	16.8	16.7	16.5	16.7	16.6	0.17	-0.28
CET1 비율	13.8	13.7	13.6	13.4	13.5	13.5	0.10	-0.31

자료: KB 금융, SK 증권 추정

신한지주 – 분기별 실적 추정 및 전망

(십억원, %)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총영업이익	3,727	3,677	3,270	3,818	3,805	3,839	-0.3	2.1
순이자이익	2,694	2,763	2,787	2,816	2,805	2,828	-0.4	4.1
비이자이익	1,033	913	484	1,002	1,000	1,011	-0.2	-3.2
수수료이익	649	712	682	703	686	724	-2.5	5.6
기타비이자이익	384	201	-199	299	315	287	5.2	-18.1
판관비	1,443	1,498	1,599	1,372	1,525	1,509	11.2	5.7
총전이익	2,285	2,179	1,671	2,446	2,280	2,331	-6.8	-0.2
대손충당금 전입액	548	475	767	378	533	457	41.1	-2.8
영업이익	1,736	1,704	904	2,068	1,747	1,874	-15.5	0.6
세전이익	1,728	1,590	789	1,791	1,763	1,895	-1.5	2.0
당기순이익	1,269	1,219	576	1,348	1,305	1,402	-3.2	2.8
지배순이익	1,238	1,192	550	1,322	1,272.8	1,367	-3.7	2.8
그룹 대출채권	407,546	413,512	413,498	424,450	434,603	436,118	2.4	6.6
그룹 예수금	385,523	384,995	381,513	394,480	402,033	407,029	1.9	4.3
(%, %p)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NIM	2.00	1.99	1.97	2.00	1.97	1.95	-0.03	-0.03
CIR	38.7	40.7	48.9	35.9	40.1	39.3	4.15	1.38
Credit Cost	0.57	0.49	0.78	0.38	0.52	0.44	0.14	-0.05
NPL 비율	0.52	0.52	0.56	0.62	0.62	0.64	0.00	0.10
BIS 비율	16.0	15.6	16.0	15.8	15.6	15.8	-0.21	-0.36
CET1 비율	13.0	12.9	13.2	13.1	13.0	13.2	-0.14	-0.04

자료: 신한지주, SK 증권 추정

하나금융지주 - 분기별 실적 추정 및 전망

(십억원, %)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총영업이익	2,824	2,684	2,399	2,933	2,791	2,831	-4.8	-1.1
순이자이익	2,232	2,358	2,188	2,221	2,169	2,203	-2.3	-2.8
비이자이익	591	326	211	713	622	628	-12.8	5.1
수수료이익	472	466	414	513	436	452	-14.9	-7.5
기타비이자이익	120	-139	-203	200	185	176	-7.3	54.8
판매비	1,034	1,057	1,210	1,098	1,075	1,099	-2.1	3.9
총전이익	1,790	1,627	1,189	1,835	1,716	1,733	-6.5	-4.1
대손충당금 전입액	450	441	496	272	412	375	51.3	-8.5
영업이익	1,339	1,186	692	1,563	1,304	1,358	-16.6	-2.6
세전이익	1,297	1,242	689	1,401	1,311	1,336	-6.4	1.1
당기순이익	936	963	490	1,042	970	989	-6.8	3.7
지배순이익	919	957	474	1,034	957.5	975	-7.4	4.2
그룹 대출채권	368,957	374,581	381,411	379,801	391,494	392,604	3.1	6.1
그룹 예수금	362,482	370,707	371,866	376,734	385,324	391,098	2.3	6.3
(%, %p)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NIM	1.84	1.79	1.76	1.77	1.70	1.70	-0.07	-0.14
CIR	36.6	39.4	50.5	37.4	38.5	38.8	1.08	1.89
Credit Cost	0.47	0.45	0.50	0.27	0.40	0.36	0.13	-0.07
NPL 비율	0.45	0.46	0.50	0.53	0.52	0.55	0.00	0.07
BIS 비율	15.2	15.3	15.6	15.3	15.3	15.5	0.03	0.07
CET1 비율	12.8	12.7	13.2	12.9	12.7	12.9	-0.17	-0.10

자료: 하나금융지주, SK 증권 추정

우리금융지주 - 분기별 실적 추정 및 전망

(십억원, %)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총영업이익	2,473	2,477	2,338	2,549	2,546	2,539	-0.1	3.0
순이자이익	2,194	2,187	2,143	2,198	2,202	2,207	0.2	0.4
비이자이익	278	290	195	351	344	332	-1.9	23.5
수수료이익	424	435	443	503	467	469	-7.2	10.1
기타비이자이익	-146	-146	-248	-152	-123	-137	적지	적지
판매비	1,021	998	1,388	1,032	1,028	1,043	-0.4	0.7
총전이익	1,452	1,479	949	1,517	1,518	1,495	0.1	4.6
대손충당금 전입액	556	261	816	368	437	364	18.9	-21.4
영업이익	895	1,218	133	1,149	1,081	1,131	-5.9	20.7
세전이익	878	1,247	122	1,144	1,083	1,133	-5.3	23.4
당기순이익	667	918	94	840	802	839	-4.5	20.1
지배순이익	625	899	68	824	787.3	824	-4.5	25.9
그룹 대출채권	369,016	365,462	373,148	379,449	384,007	388,607	1.2	4.1
그룹 예수금	333,713	335,613	357,784	355,054	363,341	369,305	2.3	8.9
(%, %p)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NIM	1.85	1.81	1.72	1.74	1.73	1.71	-0.01	-0.12
CIR	41.3	40.3	59.4	40.5	40.4	41.1	-0.11	-0.91
Credit Cost	0.64	0.30	0.90	0.40	0.47	0.39	0.07	-0.18
NPL 비율	0.40	0.41	0.37	0.45	0.47	0.49	0.02	0.06
BIS 비율	15.7	15.7	15.8	15.8	15.8	15.8	-0.02	0.09
CET1 비율	12.0	12.1	12.0	12.0	12.0	12.0	0.03	0.01

자료: 우리금융지주, SK 증권 추정

기업은행 - 분기별 실적 추정 및 전망

(십억원, %)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총영업이익	2,102	2,032	2,220	2,061	2,104	2,108	2.1	0.1
순이자이익	1,965	1,984	2,029	1,978	1,969	1,979	-0.4	0.2
비이자이익	136	48	191	84	135	128	62.1	-0.8
수수료이익	132	136	100	97	129	132	32.3	-2.3
기타비이자이익	5	-88	91	-14	7	-4	흑전	41.8
판매비	719	612	676	697	720	630	3.3	0.1
충전이익	1,382	1,420	1,544	1,364	1,384	1,478	1.5	0.1
대손충당금 전입액	534	452	844	335	511	488	52.5	-4.3
영업이익	849	968	700	1,030	874	989	-15.1	3.0
세전이익	900	989	667	1,027	884	1,001	-14.0	-1.8
당기순이익	667	732	553	784	654	741	-16.6	-2.0
지배순이익	664	729	557	781	652.6	739	-16.4	-1.7
그룹 대출채권	324,457	324,555	315,883	326,787	330,742	337,595	1.2	1.9
그룹 예수금	156,947	149,223	154,045	154,911	158,850	161,844	2.5	1.2
(%, %p)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NIM	1.78	1.76	1.76	1.74	1.72	1.70	-0.02	-0.06
CIR	34.2	30.1	30.5	33.8	34.2	29.9	0.41	-0.01
Credit Cost	0.72	0.60	1.11	0.44	0.66	0.62	0.22	-0.06
NPL 비율	0.98	1.01	1.05	1.12	1.13	1.13	0.01	0.15
BIS 비율	15.1	15.0	14.9	14.9	15.1	15.0	0.11	0.01
CET1 비율	11.5	11.5	11.3	11.4	11.3	11.2	-0.12	-0.20

자료: 기업은행, SK 증권 추정

BNK 금융지주 - 분기별 실적 추정 및 전망

(십억원, %)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총영업이익	801	774	816	857	879	826	2.6	9.8
순이자이익	717	719	739	740	749	745	1.2	4.5
비이자이익	84	55	77	117	130	82	11.0	55.3
수수료이익	67	68	38	68	75	67	9.3	11.1
기타비이자이익	17	-13	39	49	56	14	13.4	233.4
판매비	357	343	383	380	363	348	-4.5	1.7
충전이익	444	431	432	477	516	478	8.2	16.3
대손충당금 전입액	165	163	500	166	240	175	44.5	45.4
영업이익	279	269	-68	312	277	303	-11.2	-0.8
세전이익	280	283	-36	342	283	304	-17.3	1.0
당기순이익	215	212	-17	255	212	228	-16.7	-1.3
지배순이익	203	204	-25	250	199.9	216	-19.9	-1.7
그룹 대출채권	110,557	114,374	110,845	112,392	112,814	113,254	0.4	2.0
그룹 예수금	104,121	107,432	106,761	107,564	109,082	109,981	1.4	4.8
(%, %p)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NIM	1.89	1.83	1.88	1.93	1.93	1.90	0.00	0.04
CIR	44.6	44.3	47.0	44.3	41.3	42.2	-3.05	-3.30
Credit Cost	0.61	0.59	1.77	0.59	0.84	0.61	0.26	0.23
NPL 비율	0.57	0.58	0.73	0.85	0.89	0.95	0.05	0.32
BIS 비율	13.3	13.5	13.8	14.2	14.3	14.3	0.07	0.99
CET1 비율	11.4	11.6	11.7	12.0	12.1	12.1	0.07	0.62

자료: BNK 금융지주, SK 증권 추정

DGB 금융지주 - 분기별 실적 추정 및 전망

(십억원, %)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총영업이익	571	512	512	552	555	538	0.7	-2.7
순이자이익	401	429	418	425	423	422	-0.4	5.6
비이자이익	170	82	95	127	132	116	4.4	-22.3
수수료이익	57	49	57	51	50	55	-1.9	-12.4
기타비이자이익	113	34	38	75	82	61	8.7	-27.4
판관비	254	230	310	234	249	232	6.7	-2.0
충전이익	317	282	203	318	306	306	-3.7	-3.3
대손충당금 전입액	125	124	248	160	236	101	48.0	88.8
영업이익	192	158	-45	159	70	205	-55.6	-63.3
세전이익	193	156	-41	155	71	206	-54.3	-63.2
당기순이익	151	120	-37	113	53	155	-53.0	-64.8
지배순이익	142	115	-37	112	50.7	149	-54.6	-64.2
그룹 대출채권	59,880	61,955	62,384	63,275	64,679	66,171	2.2	8.0
그룹 예수금	53,957	55,932	57,289	57,682	58,170	58,719	0.8	7.8
(%, %p)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NIM	2.13	2.15	2.16	2.14	2.11	2.06	-0.03	-0.02
CIR	44.5	44.9	60.4	42.3	44.8	43.1	2.50	0.33
Credit Cost	0.84	0.81	1.61	1.02	1.48	0.62	0.46	0.63
NPL 비율	0.97	1.00	1.17	1.30	1.27	1.26	-0.02	0.30
BIS 비율	14.1	13.8	13.9	13.7	13.6	13.7	-0.12	-0.52
CET1 비율	11.3	11.1	11.2	11.1	11.0	11.1	-0.08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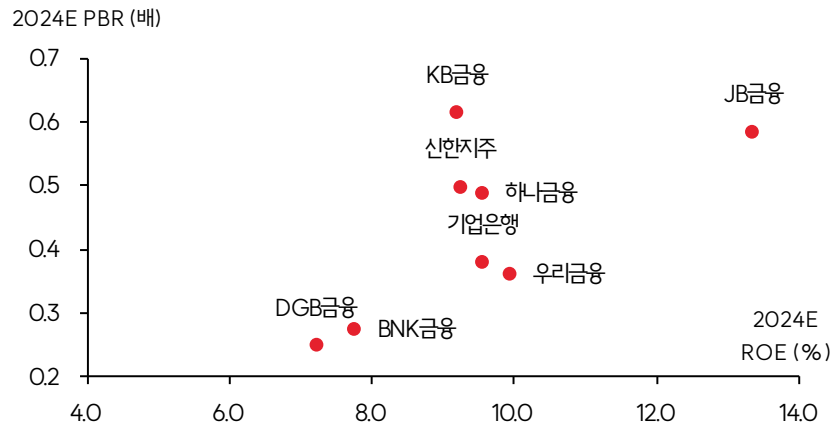
자료: DGB 금융지주, SK 증권 추정

JB 금융지주 - 분기별 실적 추정 및 전망

(십억원, %)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총영업이익	508	530	473	532	533	536	0.2	5.1
순이자이익	457	487	493	497	493	496	-0.8	7.7
비이자이익	50	43	-20	36	41	41	14.8	-18.3
수수료이익	23	29	4	28	20	23	-29.2	-12.7
기타비이자이익	27	14	-24	8	21	18	175.2	-22.9
판관비	181	179	220	199	189	186	-5.0	4.1
충전이익	326	351	253	334	345	350	3.4	5.7
대손충당금 전입액	106	121	126	106	115	101	8.7	7.9
영업이익	220	231	126	228	230	248	0.9	4.6
세전이익	221	228	128	231	231	248	-0.4	4.4
당기순이익	167	173	96	176	174	187	-1.1	4.1
지배순이익	163	167	93	173	168.9	182	-2.5	3.8
그룹 대출채권	47,332	48,594	49,266	50,086	50,943	51,516	1.7	7.6
그룹 예수금	42,344	42,975	42,958	43,895	44,885	45,556	2.3	6.0
(%, %p)	2Q23	3Q23	4Q23	1Q24	2Q24E	3Q24E	QoQ	YoY
NIM	3.22	3.31	3.25	3.26	3.23	3.20	-0.03	0.01
CIR	35.7	33.8	46.6	37.3	35.4	34.8	-1.96	-0.35
Credit Cost	0.92	1.02	1.05	0.86	0.92	0.81	0.06	0.01
NPL 비율	0.82	0.85	0.86	1.00	1.02	1.07	0.02	0.21
BIS 비율	14.6	14.5	14.1	14.1	14.3	14.4	0.16	-0.34
CET1 비율	12.3	12.4	12.2	12.3	12.4	12.6	0.11	0.14

자료: JB 금융지주, SK 증권 추정

커버리지 은행 – 2024E PBR-ROE Matrix



자료: 각사, FnGuide, SK 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작성자(설용진)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4년 07월 04일 기준)

매수	96.32%	중립	3.68%	매도	0.00%
----	--------	----	-------	----	-------